

한국-독일, 선진 섬유기술 교류

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독일섬유산업연합회, 다이텍연구원, 아헨공대 섬유기술연구소 등과 4자 MOU를 체결했다고 2013년 10월17일 발표했다.

섬유산업연합회는 2020년까지 한국-독일 사이의 섬유산업 기술 및 지식 이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, 섬유분야 인적교류, 합동 워크샵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.

국내 섬유기업들은 MOU 체결로 독일의 선진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섬유산업협회 관계자는 “한국-독일의 섬유 관련기업이 매치메이킹을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”이라며 “양국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섬유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3/10/17>